

(주)영진닷컴

(주)영진닷컴

출판사 최고의 자리를 인터넷으로 이어간다

87년 11월 설립한 영진닷컴은 컴퓨터도서 전문출판사이며, 2000년 1월 1일자로 상호명을 (주)영진출판사에서 (주)영진닷컴으로 바꾸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업다각화를 꾀하며 도약하고 있는 기업이다.

영진닷컴의 주력사업은 출판사업이며, 컴퓨터 초보자를 위한 입문서에서부터 프로그래밍 개발자를 위한 전문서까지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책을 출간한다고 보면 정확하다. 이외에도 인터넷, PC 통신,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래밍 개발, 컴퓨터 자격증 획득을 위한 수험서 등의 다양한 분야의 도서가 출간되고 있으며, 교육자료 교재 및 교과서까지 출판하는 등 막강한 출판사업을 펼치고 있다.

영진닷컴은 96년 인터넷 사업팀을 구성, 3억여원의 기본 투자로 시작해 영진홈페이지(www.youngjin.com)를 개설한 이후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업을 준비하였다.

99년 6월 한국전자거래 표준원, 한국경제신문사, 전자신문사가 주최한 제1회 인터넷대상에서 우수사이버몰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제2회 한경인터넷대상에서 전문사이버몰부문 대상을 차지하는 등 전자상거래 사업부문에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영진의 사이버몰이 자사판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독자들이 찾는 이유는 독자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고객에 대한 철저한 A/S,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멤버십 회원제에 있다. 회원들을 위시한 독자들에게 펼치는 각종 이벤트 및 정보 제공, 마케팅 활동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특히, 누구보다 빠른 수험관련



정보제공, 편리한 쇼핑물 이용 등은 영진닷컴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으며, 다른 사이트보다 한걸음 빠른 Q&A로 독자들의 의문점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까지 사업 확장

87년 영진출판사로 시작해 출판사의 테두리를 벗고 사업규모를 확장한 (주)영진닷컴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네가지 사업을 준비중이다.

첫 번째로는 컴퓨터출판사업(영진.computer publishing)을 들 수 있다. 네트워크 시대, 제대로 된 정보화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신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지원해온 (주)영진출판사의 출판사업을 보다 전문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컴퓨터 입문서 전문서 출판사업, 컴퓨터 그래픽 도서, 컴퓨터 자격증 관련도서, 인터넷 경영·경제도서 등의 출판사업과 멀티미디어 교육교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컴퓨터교육사업(영진.computer education)으로, 21세기 정보통신사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육성에 필요한 전문 교육자 양성을 위해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진을 바탕으로 강남신사옥에 교육센터를 개설한다. 이를 통해 '할 수 있다! 컴퓨터꿈나무 장학회', '할 수 있다! 멤버십 회원제', '할 수 있다! 멤버십 학원제', '컴퓨터교육 지도자 육성사업', '여성정보화 교육센터 운영', '전국 세미나 교육사업'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신기술·소프트웨어사업(영진.computer software)이다. 신기술을 개발했으나 마케팅 전략수립이 불가하고, 자금지원도 열악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정보통신사업 육성에 이바지하며, 각종 소프트웨어 사업을 펼쳐 더 큰 도약을 꾀한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지원사업, 신기술투자 사업부 운영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 시대에 발 맞추기 위하여 인터넷·전자상거래사업(영진.computer commerce)을 꾸준히 펼칠 예정이다.

이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도서 출판, 신기술개발을 위한 투자 등을 주저하지 않은 영진닷컴은, 제1회 한국전자거래표준원, 한국경제신문사, 전자신문사 주최 우수사이버몰 선정, 제2회 한경인터넷 대상 전문사이버몰부문 대상, 한국능률협회 네티즌 인증 직판쇼핑몰 부문 한국의 웹사이트 1위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컴퓨터 도서 유통사업, 교육용 소프트웨어 유통사업, 컴퓨터주변기기 유통사업, 인터넷 방송국 운영 등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 E-BOOK 활성화 미지수

새 천년을 맞이한 한국사회는 경기회복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회 전반환경의 변화로 IMF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출판계 상황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경기회복이 독서시장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도서 구매도 예년수준과 비교할 때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상반기 출판계 최대의 화두였던 'E-BOOK' 사업은 인터넷 서점과 몇몇 대형 출판사를 중심으

(주)영진닷컴

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시장성을 검증받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E-BOOK'의 전망에 대한 논쟁이 활발했었다. 앞으로 'E-BOOK'의 성패 여부는 단말기 등의 기술적인 솔루션 뿐 아니라 구체적인 '디지털 콘텐츠'의 차별성에 달려있다고 여겨진다.

YES24, ALADDIN 등의 인터넷 전문 서점이 크게 성장하면서 기존의 서점들도 인터넷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책'이 전자 상거래의 주종목으로 떠오르면서 현재 등록된 국내 인터넷 서점만 100여 개가 넘었다. 그러나, 인터넷 전문 서점의 도서 정가제 파괴는 오프라인을 끼고 있는 대형 서점과 중소 서점의 '정가제 고수'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서 정가제'에 대한 논란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기반을 발판으로 세계로 진출

영진닷컴은 이러한 현실에서도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인터넷 기반의 네가지 사업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출판사로 도약하는 것이 가장 큰 기업목표이다.

98년 영어권 국가인 인도에 '비주얼 C++ 프로그래밍 바이블 Ver.5.x' 책을 수출한데 이어 일본의 컴퓨터그래픽 전문 출판사인 본 디지털(Born Digital) 사에 'MAYA' 책을 수출하는 등 언어의 장벽이 너무 높아 수출을 시도하지 못하는 출판계의 실정을 극복, 전문성과 기술로 승부를 걸어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다.

국내 컴퓨터 출판계의 석권에 안주하지 않고, 이문철 사장은 "컴퓨터 전문가를 위한 바이블 시리즈를 개발하여 어려워진 국내 실정을 발판으로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내 수요자가 많아진 컴퓨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험서 분야도 영진정보연구소를 기반으로 개발과 투자를 계속할 것"이라며 의욕적인 계획을 밝혔다.

또한 지난 해 1월 앞으로 차세대를 책임질 컴퓨터꿈나무를 육성해 새로운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고자 장학회를 설립하였다. 영진닷컴의 '할수있다! 컴퓨터꿈나무 장학회'는 독자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할수있다!' 시리즈 1권마다 100원씩을 적립하며, 직원과 업체 및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장학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무의탁 청소년보호원과 한국장애인협회, 법무부 소년원(정보 실업중·고등학교) 등 미래 컴퓨터꿈나무 장학생들에게 장학금과 컴퓨터도서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더 발전적인 장학회로 좀더 많은 컴퓨터 꿈나무를 키우는게 영진닷컴의 목표이다.



**고객감동 경영으로 더욱 사랑받는
기업으로 발전**

영진닷컴이 이처럼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독자들의 마음을 파고들기 위해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감동경영' 때문이다. 또한 좋은 책을 만드는 것은 기본이라 여기고 출판사답지 않게 막강한 마케팅 전략 아래 각종 이벤트를 활발하게 전개하는 능동적인 출판사로도 유명하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제공, 전국 순회 로드쇼 개최, '할수있다! 멤버십 회원제' 운영, '할수있다! 캠페인' 전개, 국내외 각종 전시회 참가 등 다채롭고 끊임없는 이벤트를 개최, 발전속도가 가장 빠른 컴퓨터 세계에 맞게 독자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 정보화 보급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해온 영진닷컴은 새천년이 되면서 서초동 '영진벤처빌딩'으로 사옥을 이전했다. 지상7층, 지하2층 연면적 900여평 규모의 영진벤처빌딩은 단일 출판사로서는 최대규모인 3개층 300여평 규모의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해 고객들에게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고객지원센터는 지상 1층 '인터넷 북 카페', 2층 '세미나 실', 3층 '고객지원센터'로 구성돼 있다. 고객지원센터 외에 지하 1층은 '물류 자동화시스템'을 갖춰 정시 배송과 개별독자에 대한 택배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였으며, 4층부터 7층은 업무시설로 이용된다.

영진닷컴 한상진(韓相振) 총괄본부장은 "신사옥을 마련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시설이 고객지원센터였다. 지난 13년간 영진닷컴에 성원을 보내준 수백만 고객들과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눔으로써 고객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기업으로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철 사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고위 경제를 수료한 (주)영진닷컴의 이문철 사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샐러리맨이 아닌 비즈니스맨이 되자'는 말을 강조한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를 주저없이 꼽는 것을 보더라도 그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한다. 부인 강계숙 씨와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즐겨 찾는 인터넷 사이트는 조선일보 사이트이다. 좌우명으로는 '창의적인 사람, 노력하는 사람, 진취적인 회사'라고 밝혔다. 이메일 주소는 lmc@youngjin.com이다.